

실속 재테크

변동장세 투자전략

# ‘족집게 도사’ 아니라면 적립식 펀드 유리

4년전 가입 펀드 수익률, 적립식 +10.68% 거치식 -12.04%

분할매수하면 등락 관계없이 수익...7월에만 2800억원 몰려

“미래 주가지수를 100% 맞힐 수 없는 한 펀드는 거치식보다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낫다” 요즘처럼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아 주가지수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시장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지, 개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의 신(神)이 아니라면 ‘분할매수(주식을 나눠서 사는 방법)’가 최상의 투자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 조언이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2000선을 돌파한 2007년 11월1일에 액티브 국내 주식펀드에 가입했다면 지난달 22일까지 적립식은 평균 10.68% 수익을 거뒀을 것이고, 거치식은 원금을 12.04%나 까먹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삼성밸류라이프플랜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주식]’에 1050만원을 투자했을 때 적립식은 1306만원(24.39%), 거치식

은 967만원(-7.86%)을 각각 돌려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 저점에서는 거치식이, 고점에선 적립식이 높은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도 적립식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 적립식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는 적립식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신흥시장에서 1987년부터 20년 동안 펀드를 운용해 무려 3만6000% 수익률을 기록한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 이머징마켓그룹 회장의 견해도 같다.

모비우스 회장은 “최저점과 최고점을 맞

힐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꺼번에 목돈을 집어넣지 않고 분할매수하면 지수 등락에 관계없이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 7월 한달새 적립식 펀드에 28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더 몰렸다.

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적립식 펀드 판매잔액은 전월대비 2810억원 늘어난 54조2530억원을 기록했다. 계좌수는 전달보다 6만5000계좌 줄어든 918만3000계좌로 조사됐다.

정액적립식은 650억원, 자유적립식은 2160억원이 더 몰렸다. 장기 투자상품 가운데서는 개인연금 3억원, 연금저축 459억원, 장기주택마련저축 32억원씩 각각 늘었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 내 아이 독서왕 만들기

벼꽃도 알려줄 겸 아들과 동네 산책을 나갔다. 논가에 부추꽃이 보인다. 무슨 꽃인지 궁금해 하는 아이를 위해 대답대신 이파리 하나를 뜯어 먹였다. 돌아오는 길 아이는 개미를 잡았다. “엄마! 아레떡이 크지? 그래서 이견 병정개미야”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자연스레 식물도감을 추켜든다. 궁금한 것이 많았던 모양이다. 간혹 사람들은 내 직업 때문

가져다 두기 시작했다. 10권의 책이 쌓일 즈음 호기심에 나도 아이들 책을 읽기 시작했다. 상식과 과학이 담긴 어린이 잡지인데 꽤 재미있었다. 화장실에서 읽은 책 덕분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내가 책 내용을 말하니 큰 아이가 즐거워하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준다. 책 덕분에 아이들과 소통이 시작됐다.

그 뿐인가. 새로운 ‘독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 아이의 독서량은 또래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한글을 떴 이후 7살부터 심심하다며 매일 한 권씩 읽더니 독서경력 4년차인 요즘엔 활자량이 많은 책까지도 꼼짝 않고 읽어낸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책 읽어라’ 잔소리를 해 본 적은 없다. 글이 질릴 만하면 활자 없는 그림책을 내려놓거나 스스로 서점에서 책을 고르게 했는데 자기가 고른 책이라서인지 애지중지 각별하게 읽었다.

올 여름엔 약간 어려운 책 몇 권을 정해 읽은 후 퀴즈 대화를 열기로 했다. 주로 책 내용에 대한 것인데 읽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한 칭찬과 격려의 의미가 더 크다. 물론 상품도 준비할 것이다. 아무래도 책 선물은 좋을 것 같은데 선물이 효과적이라면 ‘큰 애가 좋아할만한 책은 뭔지, 요즘 둘째 관심사는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모양이다. 내 아이에게 양서는 ‘어린이나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은 아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고른 책!’ 그런 것이 아닐까? <담양택의 열 두 달 살림> 저자 jazzchants@hanmail.net

## 산책나가 본 들꽃·자신만의 관심사

## 공금증 자극해 책 사주면 효과만점

인지 ‘무슨 책이 좋냐? 재미있는냐?’ 묻곤 한다. 물론 가장 재미있는 책은 ‘자신의 관심사’일 것이다. 좋아하는 이야기라면 ‘읽지 마라’해도 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내가 아이들에게 주로 해왔던 방법인데 효과만점이다. TV를 보다가 궁금해 하는 게 있으면 책을 사다 아이 방에 무심하게 던져 놓는다. 읽고 안 읽고는 자유인데 자신의 관심분야라면 굶주린 듯 읽는 것을 봤다. 독서교육의 시작은 이런 것이다. 책이 자연스레 아이들 삶 속에 스며들고 행복하게 읽으며 즐기는 일. 큰 아이가 기어다닐 무렵엔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책을 늘 레고 대신 가지고 놀았다. 함께 탑 쌓기를 하고 책을 퍼 거실을 빙 두른 성도 만들었다. 책은 꼭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집 화장실엔 늘 책이 있다. 잡지부터 영어 만화 같은 류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도 자신들의 책을 한 권씩

올 여름엔 약간 어려운 책 몇 권을 정해 읽은 후 퀴즈 대화를 열기로 했다. 주로 책 내용에 대한 것인데 읽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한 칭찬과 격려의 의미가 더 크다. 물론 상품도 준비할 것이다. 아무래도 책 선물은 좋을 것 같은데 선물이 효과적이라면 ‘큰 애가 좋아할만한 책은 뭔지, 요즘 둘째 관심사는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모양이다. 내 아이에게 양서는 ‘어린이나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은 아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고른 책!’ 그런 것이 아닐까? <담양택의 열 두 달 살림> 저자 jazzchants@hanmail.net



## “한가위, 전통주로 情 나누세요”

### 보해, 웰빙·실속 등 다양한 선물세트 선보여

추석을 앞두고 보해가 웰빙과 실속, 편의성을 두루 갖춘 전통주 세트들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올 여름 잦은 비와 태풍으로 과일값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 선물세트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다양한 전통주 세트들 준비했다.

특히 보해는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매취순 10년’이 장거리 파손으로 택배발송이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 해 택배용 포장지 가능한 3L로 내놓았다. 이 제품은 보해가 출시 20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제품으로 선보인 대용량 매실주로 맛과 향이 깊고 진하며, 3L 대용량에 담



아 웰빙과 실속, 품격을 동시에 추구했다. 소비자가격은 거치대 포함 3만9500원, 500ml 3본입 세트는 2만4000원. 또한 고품격과 실리를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프리미엄 명품세트도 선보인다. 코발트색 바탕에 ‘백색 복분자 문양을 삽입해 고풍스러움을 더한 ‘전설의 힘 명품복분자주 세트’와 백색바탕에 은빛 문양을 새겨 품격을 높인 ‘보해 매취순 10년 명품세트’로 가격은 각각 4만1000원, 3만7000원이다. 이외에도 지난 설에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했던 보해 복분자주 375ml 선물세트와 매취순 375ml 선물세트를 한데 모은 ‘한아름 세트’를 판매한다. 가격은 2만3800원으로 실속과 웰빙을 모두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